



필사의 하수구 뚫기 30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백일초등학교 앞 도로가 침수되자 한 시민이 나뭇잎 등으로 막힌 하수구를 뚫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태풍 '덴빈'에 하천 독 유실... 물바다 마을 뛰어난 이장·공무원

## 수몰위기 주민 50명 구했다

#### 진도 의신면 창포리서 대부분 노인 긴급대피

진도의 한 마을 이장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태풍 덴빈으로 수몰위기에 놓인 마을 주민 50명의 목숨을 구했다.

진도군 의신면 창포리 이장 박창원(57)씨와 진도군 지역개발과 박정현(48·행정 6급)씨는 30일 오전 9시께 마을 앞 하천 독이 무너져 물이 마을을 덮치는 것을 보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직감했다.

당시 진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5.0mm 비가 퍼붓던 때였다.

이들은 긴급 대피방송도 생각했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주민 대부분이 70~80대 노인인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직접 대피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물폭탄이 쏟아져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악물고 뛰어들어 집 대문을 두드렸



마을 주민들을 구한 이장 박창원(왼쪽)씨와 진도군청 직원 박정현씨.

다. 이미 방안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주민을 발견, 본능적으로 등에 업어 고지대로 이동시켰다.

이들이 정신없이 30여 분간 마을 위 고지대로 업어 나른 주민은 50여명이었다. 주민들이 고지대로 모두 대피한 이후 물은 더 거세게 밀려와 수심체의 집을 삼켜버렸다.

주민 조동래(80)씨는 "당시 방안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며 "고마운 분들의 도움이 없

었더라면 번을 당했을 뻔 했다"며 고마워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난 공무원 박씨는 태풍을 앞두고 담당 마을을 순찰하던 중 가족과 이웃을 구하게 됐다.

박씨는 "당시 상황이 급박해 대피방송은 물론 도움의 손길조차 요청할 수 없었다"면서 "이장님과 함께 움직이기 어려운 주민을 무조건 업고 달렸는데 모두 무사해 오히려 감사할 뿐"이라며 활짝 웃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4분 / 해질 19시 01분 / 달돋이 18시 30분 / 달질 05시 31분

**구름 낀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

|     |      |        |
|-----|------|--------|
| 광주  | 구름많음 | 21/29℃ |
| 목포  | 구름많음 | 20/27℃ |
| 여수  | 구름많음 | 22/29℃ |
| 나주  | 구름많음 | 21/29℃ |
| 완도  | 구름많음 | 21/29℃ |
| 구례  | 구름많음 | 22/29℃ |
| 강진  | 구름많음 | 21/29℃ |
| 해남  | 구름많음 | 20/29℃ |
| 장흥  | 구름많음 | 20/29℃ |
| 순천  | 구름많음 | 20/29℃ |
| 영광  | 구름많음 | 20/28℃ |
| 진도  | 구름많음 | 20/29℃ |
| 전주  | 구름많음 | 18/27℃ |
| 군산  | 구름많음 | 18/26℃ |
| 남원  | 구름많음 | 18/27℃ |
| 홍산도 | 구름많음 | 20/27℃ |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먼바다 북서~북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먼바다 북서~북 북서~북  
파고 2.0~3.0m 2.0~3.0m 1.0~2.0m 1.5~3.0m  
식용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염지수  
경고 보통 높음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먼바다 북서~북 북서~북 남해 서부 앞바다 먼바다 북서~북 북서~북  
파고 0.5~1.5m 2.0~3.0m 0.5~1.0m 1.0~1.5m  
밀물 썰물  
목포 01:56 07:11 14:04 19:18  
여수 08:45 02:38 21:14 14:44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        |       |       |       |       |       |
|-------|--------|-------|-------|-------|-------|-------|
| 날짜    | 9/1(토) | 2(일)  | 3(월)  | 4(화)  | 5(수)  | 6(목)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22/30  | 23/31 | 23/30 | 24/28 | 23/28 | 23/29 |

## 태풍에 바빠진 광주 유리업체

#### 창문 수리 주문건수 하루 100여통 쇄도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지나간 이후 광주지역 유리 업체들에게는 주문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일부 노후 아파트들은 며칠째 창문 없이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경유리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창문 주문건수가 모두 50여건에 이른다.

문의 전화까지 합하면 매일 100여 통 이상의 전화를 받고 있다. 오경유리 사장은 "원래는 건설사 에만 유리를 납품했는데, 최근 주문이 폭증해 일반 가정집 유리도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유리 업체들의 사정도 마찬

가지다. 서구 쌍촌동 한 업체는 28일부터 밤 11시까지 유리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는 그동안 받은 70여건의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30일 부터는 다른 업체들을 연결해주거나 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유리 생산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해도 광주 전역에서 빗발치는 수요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평상시에는 하루 1~2건의 주문을 받았었다.

김모(47)씨는 "신론에는 광주지역 창문 피해가 100여건 수준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송정리 지역 15층 이상 노후 아파트의 주문이 많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무등산 수박축제'

#### 태풍 여파로 취소

다음달 초 예정됐던 무등산수박축제가 잇따른 태풍으로 취소됐다.

광주시 북구는 30일 내달 1일과 2일로 예정되었던 제5회 무등산수박축제를 태풍 '볼라벤'의 여파와 '덴빈'의 북상에 따라 취소한다고 밝혔다.

북구와 무등산수박 생산조합은 무등산수박의 명품성을 홍보하고 성공출하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본격 출하된 무등산수박의 작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000여 톤이 수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광주·전남 늦더위 시작

태풍이 지나간 광주·전남지역은 늦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1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낮 기온은 27~30도 수준으로 예상된다. 주말인 다음달 1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기온은 21~30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휴일인

다음달 2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음달 4일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낮 기온이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9월 첫주의 강수량은 평년(3~14mm)보다 많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나주 한우 집단 폐사

#### 세균성 식중독 원인

나주시는 30일 남평읍 정모씨 축사의 한우 집단 폐사 원인이 '보툴리즘 독소증'에 따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정밀 검사결과 오염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발병하는 세균성 식중독인 보툴리즘 독소증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토양에서 유래하는 독소 증독증인

보툴리즘은 보툴리즘균(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한 신경독소가 신경이나 근수축 마비를 일으켜 주저앉거나 호흡 곤란, 침 흘림 등의 증상을 보이며 대부분 수 시간에서 수 주 내에 호흡 근육 마비로 폐사시키는 병이다.

치사율 35~40%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가축에서 가축으로 옮기는 전염성은 없다. 한편 정씨의 축사에서 기르던 한우 18마리 가운데 9마리가 지난 19일부터 3~4일만에 폐사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원기자 chung@

## 급발진 사고 차량 '결함 못찾아'

####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

자동차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운전자가 주장한 달리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등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30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3월 용인 풍덕천 스포티지R 사고와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에서 발생한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포티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결과, 브

레이크가 총돌 5초 전부터 총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속도는 총돌 2초 전 시속 4~6km에서 36km까지 상승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는 총돌 2.5초 전 800에서 4000까지 높아졌고 가속페달은 스로틀 밸브가 사고 2초 전 열려 급가속해 운전자가 총돌 직전에 발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EDR가 부착되지 않은 그랜저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CCTV 화면상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필뉴스

휴먼스피치 전문교육: 스피치불안증해소, 발표, 설득, 토론, 프리젠테이션, 협상, 사회진행, 방송토론, 방송연설, 커뮤니케이션스킬

#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

###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진정한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공감을 이끌어 내는 사람!

어디서나 배울 수는 있어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휴먼스피치'에서는 전문교수의 특별한 지도를 받습니다!

[공개강의 특강] - 9월 4일(화) 19시  
주제: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정수(Essence)  
강의: 이진학(휴먼스피치 대표원장)  
※ 무료공개강의 특강은 사전 전화로 신청

###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과정

#### 커리큘럼

| 주요 교육 내용  | 주요 교육 내용  |
|---|---|
| 제 1강 ~제 2강<br>Orientation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이해                      | 비언어적 스피치스킬<br>Vocal 요소 훈련(목소리요소 트레이닝)             |
| 제 3강 ~제 4강<br>비언어적 스피치스킬<br>Body-motion(스피치 상황에서의 동작)           |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한 실습훈련<br>스피치발안출 극복훈련                  |
| 제 5강 ~제 6강<br>언어적 스피치스킬<br>메시지구성기법(조리있는 구성법)                    | Attention skill<br>사투기법(주목시키는 기법)                 |
| 제 7강<br>논리적 메시지 기법<br>주장(claim)세우기, 이유와 증거제시하기                  | 설득스피치를 위한 Issue화 기법<br>문제제기를 통한 정점만들기 기법          |
| 제 9강 ~제 10강<br>결론과 마무리 기법<br>설득적 결론기법, 마무리기법, 결론기법              | 테마스피치 실습훈련(Full Version)<br>종합실습훈련과 모니터링(평가자참여훈련) |
| 제 11강 ~제 12강<br>청중분석과 청중대응기법<br>청중파악, 청중분석, 청중리딩기법              | 설득의 원리와 설득커뮤니케이션<br>설득기법을 활용한 설득스피치기법             |
| 제 13강 ~제 14강<br>Interpersonal 커뮤니케이션 스킬<br>대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훈련 | 테마스피치 종합실습훈련<br>Self-monitoring훈련-피드백실습           |
| 제 15강<br>스피치경연대회-3분스피치<br>수료식-휴먼포럼 구성                           | 휴먼스피치교육은<br>체계적, 전문적, 실용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

※ 휴먼스피치교육은 원리기법을 통한 실습모니터링 중심교육을 합니다.  
※ 80% 이상 출석한 분들은 '스피치커뮤니케이션 3급 자격' 응시 기회를 드립니다.



휴먼스피치문화원 / 휴먼AD / 휴먼Learner 대표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사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강사  
휴먼포럼 지도교수  
휴먼스피치문화원 대표/원장 이진학

휴먼스피치문화원은 1997년 전국 최초로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프리젠테이션, 면접(Interview), 토론(Debate) 연설 및 선거방송토론, 상담과 설득, 협상분야에 체계적, 전문적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강사 및 컨설턴트를 30여 명 배출함으로써 이 분들이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휴먼스피치문화원 교육의 특징

1. 탄탄한 원리와 기법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설명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2. 단순한 표현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터득합니다.
3. 스피치훈련을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과정 수료시점에는 설득력 있는 스피치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4. 실용적으로 한 번 배는 실습이 아니라 계획, 실습, 모니터링, 분석, 평가,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5. 휴먼스피치는 수요이후 휴먼포럼회원으로 꾸준한 보수교육과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휴먼스피치문화원 HUMAN SPEECH CULTURE CENTER

교육문의 1588-6117

가장 인기있는 말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기가 많은 말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